

타우지 제 104 호  
다 함께 앞날을 설계합시다

### 2021 년도 국가형제회 선거총회

2021 년도 국가형제회 총회는 10 월 26 일 부터 31 일까지 온 라인 비대면으로 할 예정이다. 그러나 선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평의회는 내년 봄이나 여름 언제하는게 좋은지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2022 년 10 월 11 일에서 16 일까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서 열리는 국가형제회 총회에서 하기로 결정했다. 이미 등록된 후보들에게는 이사실을 통보하고 2022 년 봄에 다시 후보추천을 받을 것이며, 금년에 추천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후보추천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.

### 초기회칙제정 800 주년

세계형제회에서는 초기회칙 반포 800 주년을 맞는 2021 년을 기념하는 해로 선포했었고 미국형제회도 이를 따랐는데 5 년차 총회를 연기하는 바람에 2022 년 8 월 5 년차 총회가 끝날 때 까지 연장하여 기념할 예정이다.

###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를 교회법에 따라 설립하는 지침

올해 이에 관한 잠정적인 지침이 나와 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 실려 있다. 7 월에 전국적인 공론을 거쳐 현재 수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침이 확정되면 알려드릴 예정이다.

### 미국 재속프란치스코회 웹사이트 소식

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 뉴스칸을 첨가했는데 본 메뉴에서 뉴스를 클릭하고 최신뉴스를 선택하면 된다. 재속회원 새론 윈즐러가 이 웹사이트의 새로운 책임자이며 최근에 2 명이 추가되어 모두 7 명이 일하고 있다.

## 소통위원회

소통 위원회 임원들을 환영한다. 이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영역에서 회원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각급 형제회 모임에서 청각, 시각 또는 이동에 문제가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함이다. (타우지 이번호 관련기사 참조).

## 지금 등록을 받는 중

2022년 5년차 총회(Q) 등록을 서둘러--- 등록비 조기할인은 2021년 12월까지.  
8월 30일 현재 100명 이상 이미 등록을 마쳤는데 아직도 여유가 많다. 자세한 사항은 타우지 이번 호를 참조할 것. 도움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[ofsusa.qcongress@gmail.com](mailto:ofsusa.qcongress@gmail.com) Q 위원회로 할 것

## 새로운 초기양성 교재:

양성팀은 새 초기 양성교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. 지금으로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. 국가형제회 회장의 말씀: “이 새로운 양성교재를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훌륭한 팀을 모으셨다. 모든 봉사자들이 그렇듯이 이 팀에서 일하는 회원들은 하는 일도 많고 책임도 무겁다. 이 팀의 회원들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재속회 일도 하고 있는데, 이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. 이 일을 하는데 그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. 이 새로운 양성교재는 재속회의 수준을 높일 것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깝고 소중하게 닦아올 것이다. 이 팀과 이 일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자. 몇년전 국가형제회 계획모임에서는 모든 계획은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” 우리는 이를 굳게 믿으며 무슨 일을 하던지 하는님이 정해 주신 완전한 때를 믿고 한다”

“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.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. 늦어 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. 그것은 오고야 만다. 지체하지 않는다.” (하바쿱 2:2-3)

계획팀:메리 비트너, 저스틴 카리시오, 프란신 기코우, 레이나 마어, 다이안 멘디토, 앤 멀퀸, 잰 파커, 메리 스트로나크

타우출판사 최근소식---형제회 회원명부와 기타

타우출판사에서는 회원명부 같은 하드커버를 더 이상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인쇄소를 물색중이다. 또한 Franciscan Federation's *Franciscan Morning and Evening Praise* 같은 책도 마찬가지이다. 그러나 Tom Bello 가 쓴 *For All the Saints: St. Francis's Five Point Plan for Salvation* 는 아직 타우 출판사에서 구할 수 있다.

*Let us live a life worthy of our call. 소명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.*